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정 하 나*

요약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아 위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데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다문화 사회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및 집단 편견으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경험이었다. 접촉경험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을 접하는 경험이 낮아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편견이 강화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외국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동화만이 대안이 아니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이주민, 다문화 위협, 국민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집단편견, 다문화 정책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인 17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4%를 넘어섰다¹⁾.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 민족적 다양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민과 외국인의 증가는 단일민족을 당연시 해 온 한국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단지 인구 구성이 인종이나 민족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 이상으로 다차원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일차적으로는 노동력 수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지역경제, 소수자 인권, 교육, 소수민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 등 향후 부각 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최근 들어 테러 등 국제적 위협으로 인해 유럽 뿐 아니라 미국, 호주 등의 이민국가에서도 이주민에 대해 위협인지가 높아지고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점차 외국인이 증가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주의 증가는 이주민들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주정책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한국인이 다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시행해왔다. 국내 행정학 분야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 고찰 및 소수자 정책의 관점에서 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한다던가, 소수자 정책을 정책 수단의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다문화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가 주를 이루었으나(전영평, 2007; 이종변, 2008; 최무현, 2008), 최근 들어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장입숙, 2010; 박진경, 2010; 원숙연, 2011; 원숙연, 2012; 정하나, 2015:60에서 재인용).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정치적 보수, 진보 성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황정미 외, 2007; 김도경 외, 2009; Martiniello, 2002; Banting, et al., 2006),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자원 스트레스까지(조정인, 2011; 원숙연, 2012; 김정규, 2013)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연구가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켰지만, 거주 외국인의 증가 및 다양화의 시점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한국의 거주 외국인인 저숙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주축이 되어왔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자로 인식되거나, 우리 사회의 고유한 혈통과 단일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1)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며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부터 조사 발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2015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사회적으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조정인, 2011: 282).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 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다. 특히 이주의 초기 단계에서 정착단계까지는 ‘다민족·다문화 지향상’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였지만, 인종, 민족적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저항, 위협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요구된다.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²⁾ 한국인들이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태도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상 국가 중심적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와 정책은 배타적 동화주의에 바탕을 둔 차별배제모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김미나, 2009; 전형권·이승희, 2011; 김정규, 2013:212에서 재인용). 그렇기에 한국인들의 다문화 태도는 이주자나 이주자 사회를 접하거나 경험한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고 보다는 인지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김정규,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엇이 다문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이 이주민들의 유입에 역행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면 국민들이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주민들은 또 다른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요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사회 통합적 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반이주 정서, 즉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다문화 위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들이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인식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들 집단간의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방향과 달리 다문화 지향이 아닌 다문화 위협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다문화를 바람직한 가치로 받아들이는가, 위협으로 인지하는가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황정미 외, 2007)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다문화 사회로의 지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개방성의 정도(윤상우·김상돈, 2010), 다문화 수용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영향력(김상학, 2004; 인태정, 2009; 임도경·김창숙, 2011), 진보·보수 등의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논의(김도경 외, 2009; Banting, et al., 2006; Breunig & Luedtke,

2)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1996, 2003),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에 대한 조사; 성균관대학교(2004, 2011). 한국종합사회 KGSS 조사.

2008),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과의 관계(정기선, 2004; 황정미, 2010) 등에 대한 논의가 그러하다. 하지만 다문화 수용에 대한 논의만큼 중요한 것은 다문화의 위협에 대한 논의이다. 최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사회와 관련해, 일자리에 대한 위협인지 통계자료를 구성한 것은 점차 한국 사회에서 위협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³⁾. 학계에서도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집단경쟁을 인지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조정인, 2011; 원숙연, 2012; 김정규, 2013), 위협의식이 가질 수 있는 반이주정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외국인 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거주 외국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이주 정책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종적 다양성’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황정미 외, 2007; 윤상우·김상돈, 2010; 송미영, 2010), 이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경향성은 어떠한지(김상학, 2004, 박수미 외, 2004; 김금미, 2010; 전영자·전예화, 2010) 등을 통해 이주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국민이 이주해 오는 인종적 소수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왔다. 이러한 연구가 신생 다문화 사회로서 한국의 현실 및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로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파악한 것이다. 이들 집단의 인식 차이를 통해 향후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요인이 무엇이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것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이를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 각 집단별로 필요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다 적실성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논의

1) 선행 연구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서구 이민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며(Espenshade & Hempstead, 1996, Hood & Morris 1997; Jackson et al., 2001; Esses et al., 2001; Coenders et al., 2003; Gallav 2004; Breunig & Luedtke, 2008), 한국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 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황정미, 2007; 송미영, 2010; 장입숙,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14), <http://kosis.kr/statHtml/>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원숙연, 2011; 조정인, 2011; 김정규, 2013).

기존 연구들을 통해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몇 가지의 요인들로 분류된다.

첫째, 국민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국민 또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과 자질을 혈통과 같은 귀속적, 생득적인 것으로 파악하는가 법과 규칙 준수 등 성취적인 것으로 파악하는가는 중요한 다문화 태도의 척도가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차원이다. 이주민은 한 사회의 주류집단과 구별되는 소수자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은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정체성은 사회정체성의 형태로서 특정 국가와 연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beliefs)과 감정(feeling)을 말하며(Wiggins & Zanden, 1994)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혹은 그에 대한 자기이해로 정의된다(Brubaker, 1992; Choe, 2000; 박진경·원숙연, 2010:198에서 재인용). 상상된 공동체에의 소속감과 집합적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정체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체적인 측정 지표로 국적, 시민권, 국민의 자격요건 등을 사용하고 있다(황정미, 2010:159).

국민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시민적 요인과 민족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Jones & Smith, 2001; Choe, 2002) 시민적 요인은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 및 국적취득 여부, 언어구사 정도 및 소속감 등 취득 가능한 유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민족적 요인은 부모의 인종이나 출생지와 같이 변경이 어려운 귀속적이고 부여된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경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ISSP, 1998; 정기선, 2004; 황정미 외, 2007; 원숙연, 2013:90에서 재인용). 즉, 민족적 요인은 생득적 지위로서의 국민지위와 속인주의를 견지하는 배타적인 입장인 반면, 시민적 요인은 속지주의 및 법, 규범의 준수 등 성취 지위를 강조하는 보다 포용적인 모델로 이해되어 왔다(황정미, 2010).

Brubaker(1992)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정체성 중 시민적·영토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국가는 다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보다 쉽게 수용하고, 인종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Jones & Smith(2001)의 연구에서도 후기 산업화와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족적 요인보다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정체성을 가지며, 이런 경향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요할수록, 시민권자보다 이민자들이 보다 포용적 국가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서, 2012:92에서 재인용). Shulman & Beit(2002) 역시 시민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집합적 성원의식(membership)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 집단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포용적 태도를 보이고,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더 많은 자본과 노동

력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주자집단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랜 단일민족 국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은 국민 정체성의 요인 중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최현, 2007, 황정미 외, 2007, 윤인진·송영호, 2011).

다음으로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논의이다. Bogardus(1928)에 의해 개념화된 사회적 거리감은 한 개인이 특정집단이나 계층 구성원에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이며, 이를 측정하는 것이라 하겠다(김상학, 2004).

사회적 거리감은 부정적 신념과 감정적인 측면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인종에 대한 사회의 수용정도를 알아보는 유용한 도구로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 관련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김상학, 2004; 황정미 외, 2007; 김희자, 2008; 인태정, 2009; 전영자·전예화, 2010).

Crull & Bruton(1979)은 소수 인종 집단과 접촉이 있었던 학생들이 접촉 없이 통제된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해당 소수 인종에 대한 거리감을 더 적게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접촉경험이 부정적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태정(2009)의 연구에서는 진보적일수록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낮게 느끼고 외국 방문이나 외국인 친구 등 외국인을 접촉할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태도 형성에 감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차별과 편견이다. 피부색의 차이에 따른 인종이라는 작위적인 차별의 분류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의 출발점은 차이이다(유명기, 2004). 이 ‘차이가 ‘차별’로 전환되는 것은 그것이 위계성을 띠는 경우인데(조순경, 2003), 즉, 서열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집단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면서 이들을 배제,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정하나, 2015:71에서 재인용).

한 사회의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각할 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커지는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갈등은 지역, 성별, 세대 등으로 국한되어 왔으나 차츰 인종적인 차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차별을 초래하고 차별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박수미, 2004; 정하나, 2015:71에서 재인용). 차별의 문제는 성, 학력,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이를 이주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이주자를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 Ottati, 2002).

주류 사회에서 이주민이 다른 국가에 와서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편견에 있다. 오랫동안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서구 이민국가를 중심으로 인종적 편견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왔다. 인종적 편견이 적극적 조치와 같은 외국인 관련 정책에 지극히 작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Sniderman & Carmines, 1997; 원숙연, 2011에서 재인용), 전통적인 의미의 인종주의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상징적 인종주의(new symbolic racism)라는 새로운 형태로 편견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Jacobson, 1985; Bobo & Kluegel, 1998).

이러한 편견 측정의 다른 방식으로 권위주의 성격이론이 이용되기도 한다. Adorno에 의해 제시된 권위주의 성격이론에 따르면 편견에 빠지기 쉬운 독특한 성격이 바로 권위주의라는 것이다(민경환, 1989). 권위주의적 신념을 갖게 되는 특정 집단을 측정하는 SDO(Social Dominance Orientation) 척도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선호하는지, 계층적 관계를 선호하는지, 내집단이 외집단을 지배하기를 갈망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Duckitt, 2006).

사회현상을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의 관점에서 보는 사회지배가치는 민족주의와 우월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Esses, et al., 2001; Sidanius & Pratto, 2001), 이러한 성향은 사회적 자원을 가질 자격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분리를 자연스럽게 인정함으로써 소수집단을 분리의 대상으로 할 가능성을 높인다(원숙연, 2011).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편견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수미, 2004),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보다 감정적 측면이 편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 외, 2001).

이와 같은 요인들이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암묵적 가정이 있다. 그것은 국민국가(nation-state)를 자연스러운 단위이자 경계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나 이질성, 차별과 편견, 국민정체성 등의 분석은 모두 국민국가를 자연스러운 단위로 당연시하고 있으며 갈등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 역시 국민국가의 법과 정책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외생적 요인으로, 이에 대한 태도는 내부적인 것으로 경계를 구분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황정미, 2010: 154).

2) 다문화 태도 형성의 영향 요인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다문화 지향적 태도이며, 우리 문화만이 옳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 사고이며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은 주류사회가 외집단인 이주자에게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윤

인진·송영호, 2011).

다문화를 수용하는가 위협으로 인지하는가는 이주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문화 현상을 다양성과 공존에 가치를 두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관련 정책 역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상 집단도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하지만, 다문화 현상을 국가 차원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관련 정책이나 이주 집단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종적 편견,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한 사회의 인구 구성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를 특정한 대표적인 연구가 EUMC(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의 보고서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2005)’이다. 이 연구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민족, 인종적 외집단에 대해 일반화된 비우호적 견해’를 종족적 배제주의로 정의하고, 유럽의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EUMC, 2005). 연구 결과,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외국인 이주자에 의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삭감의 위협을 느낄수록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더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은 외부 위협(extent threat)과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로 구분되는데 외부위협은 실제로 외국인 이주자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자리 등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것이며 인지된 위협은 외국인 이주자들과 경쟁하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느끼는 상황을 말한다(Coenders et al., 2003: 8-9). 특히 최근 들어 테러로 인한 이슬람계에 대한 위협은 경제적 위협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을 위협으로 인지하는 것은 현실갈등이론과 사회정체성 이론으로부터 출발한다(Coenders et al., 2003). 이는 타인종·타민족을 경쟁에서 밀어내려 하면서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집단에 대한 옹호와 외집단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갈등이론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적개심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동반하면서 이 평가가 상대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집단 간 갈등을 일으킨다(Sherif, 1966). 현실갈등이론은 세 가지를 가정한다. 첫째,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갈등은 양립되지 않는 집단 이익의 결과에 의해 발생한다. 셋째, 주로 집단 이익의 양립가능성에 의해 집단간 행동의 사회심리적 측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Taylor & Moghaddam, 1987). 즉, 가치있는 자원을 한 집단이 점유하게 되면 다른 집단은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Forsyth, 1999, 양계민, 2009: 63에서 재인용).

사회정체성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에서 부여된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자기 개념의 일부’로 정의되는데,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옹호하고 외집단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것이다(Tajfel, 1978). 사회정체성 이론은 자기범주화이론(self categorization theory)으로 발전하여 인종, 민족간의 편견과 차별을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 이론에서 인간은 세상의 사물을 범주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과 유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내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자기범주화를 통해 사회정체성을 갖게 되면 탈개인화가 일어나 자신을 사회적 범주의 한 성원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화는 현실을 단순화하여 왜곡된 지각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사회적 고정관념, 동조행동, 집단 응집성, 자민족 중심주의, 집단간 갈등, 사회적 영향, 집단의사결정 등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Turner, 1987; 양계민, 2009:63에서 재인용).

그렇기에 한 사회에서 이주민과 다문화주의를 논할 때 가장 중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동질적인 문화와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다수자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에서 한국인의 태도가 많이 논의되어왔다.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 속에서 소수자가 취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이주민이 ‘내 자신이나 내가 속한 집단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가, 혹은 ‘안전과 일상생활에 불편과 위협을 주는가’에 따라 형성되고 있다(김정규, 2013:202). 그동안 이주민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졌던 것은 이와 같이 다수자의 인식이 다문화 사회로의 전이에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으로 이주해오고 있는 이주민의 인종, 민족 등이 다양해지고 이주의 이유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이주민의 인식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다수자인 토착 시민들과 이주민들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다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실증연구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한국인, 외국인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를 표본으로 선정한 것은 조사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 대비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⁴⁾하며 출신국가도 다양

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설문은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어 고려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경우 성별, 연령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학업, 근로, 결혼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고른 분포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총 설문지는 대상별 300부로 하여 눈덩이 표집하였다. 총 배포된 600부의 설문지 중 한국인 276부, 외국인 280부가 수거되었으며 이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한국인 268부, 외국인 245부로 총 51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사전조사 및 해당 국가 언어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설문대상의 구성분포를 보면 남성 39.9%, 여성 60.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표집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2%, 30대 31%, 40대 23.5%, 50대 23.5%로 균형있게 분포되었다. 학력수준은 고졸이하 21.8%, 초대졸 11.3%, 대졸 44%, 대학원졸 22.9%로 서울시민의 평균학력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다문화 수용이라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설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60대 이상을 제외한 결과로 보인다. 소득은 101만원에서 300만원이 32.4%로 가장 높았고, 301~500만원이 27.9%, 501만원~700만원이 22.5%, 700만원 이상이 13.7%였다.

[표 1] 표본의 구성

단위: 명, %

변인		한국인 표본수	외국인 ⁵⁾ 표본수
성별	남성	107 (39.9)	22 (9)
	여성	161 (60.1)	222 (90.6)
연령	20대	59 (22.0)	130 (53.1)
	30대	83 (31.0)	76 (31.0)
	40대	63 (23.5)	32 (13.1)
	50대 이상	63 (23.5)	5 (2.0)
학력	고졸 이하	58 (21.8)	99 (40.4)
	초대졸	30 (11.3)	40 (16.3)
	대졸	117 (44.0)	80 (32.7)
	대학원 졸	61 (22.9)	23 (9.4)

4)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서울시민의 3.9%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비율 2.8%에 비해 높고 거주 외국인 수가 가장 많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거주 외국인 비율은 4.5%로 더욱 증가한 상태이다(안전행정부, 2013; 행정자치부, 2015).

변인		한국인 표본수	외국인 5)표본수
소득	100만원 미만	9 (3.4)	60 (24.5)
	101만원~300만원	85 (32.4)	134 (54.7)
	301-500만원	73 (27.9)	31 (12.7)
	501-700만원	59 (22.5)	4 (1.6)
	700만원이상	36 (13.7)	-
거주목적	학업	-	65(26.5)
	취업	-	30(12.2)
	결혼	-	131(53.5)
	기타	-	18(7.4)
출신국가	중국계	-	50(20.4)
	몽골	-	59(24.1)
	베트남	-	55(22.5)
	필리핀	-	63(25.7)
	기타	-	18(7.3)
한국국적	있음	-	73(29.0)
	없음	-	171(69.8)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표집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⁶⁾. 표본 구성의 어려움은 연령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였다. 설문대상의 53.7%가 결혼이주자이고 여성비율이 높아 2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하 40.9%, 대졸이상인 42.6% 였으며, 소득은 101만원에서 300만원까지가 5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한국인과 소득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거주 목적에 따라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설문을 배포하였으나 이 역시 표집 거점의 한 계로 인해 결혼이주자가 53.5%로 가장 높고 유학생 등 학업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26.5%, 근로자가 12.2%를 차지하였다⁷⁾. 출신국가별 거주자는 중국계 20.4%, 몽골 24.1%, 베트남 22.5%, 필리핀 25.7%로 나타났다⁸⁾. 한국국적 취득자는 전체 응답자의 29.0%였다.

5) 결측치가 있는 항목을 포함해 전체 100%로 구성되어 있음

6) 실제 거주 외국인인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거주 외국인(한국국적 동포 포함) 1,741,919명 중 남성은 904,938명, 여성은 836,981명이다(행정자치통계연보, 2015).

7) 거주 외국인 등록현황(한국국적 동포 제외)을 보면 근로자 608,116명, 결혼이민자 147,382명, 유학생 84,329명으로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자치통계연보, 2015).

8) 중국 국적인 우리 동포를 제외하고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출신국은 중국이다. 259,166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 199,950명, 필리핀 70,610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행정자치통계연보, 2015).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외국인에 대한 인지된 위협은 EUMC(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에서 측정도구로 사용한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를 기초로 하였다. EUMC의 종족적 배제주의 하위요소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다문화 사회의 한계·합법적 이주자의 시민권에 대한 반대·합법적 이주자의 송환정책에 대한 선호와(Euro Barometer), 다양성에 대한 저항·이주자에 대한 저항·난민에 대한 저항·민족적 거리에 대한 선호·집합적인 민족적 위협에 대한 인지·범죄를 저지른 이주자의 송환정책 선호 등으로(European Social Survey) 구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선행연구에서는(황정미 외, 2007, 윤인진·송영호, 2011)⁹⁾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다문화 사회의 한계·이주자 시민권 반대·이주자 송환정책 선호·이주로 인한 위협의 집합적 인지 등의 차원(dimension)으로 종족적 배제주의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된 측정 도구 중 다문화 위협과 관련된 ‘이주로 인한 위협의 집합적 인지’¹⁰⁾를 중심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였다¹¹⁾.

다문화 태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 국민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집단편견을 측정하였다.

국민정체성 인식은 사회정체성의 한 형태로서 국민적 유대감이 소수자와 이주자에 대한 태도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Tajfel & Turner, 1986, 윤인진·송영호, 2011: 146에서 재인용) 보편적인 측정도구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다문화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한국 사회에 유용한 지표라 판단하였다.

편견과 차별은 지역이나 성별, 학력 등에 따라 모든 사회 집단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인종적 다양성의 확대에 따라 극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편견, 차별과 관련된 역동적인 차원은 사회적 거리감으로 나타나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차별을 느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커지고, 거리감은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주류

9)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한국인은 다문화를 바람직한 가치로 인정하면서도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 문화적 다양성은 바람직한 가치로 생각하면서도 인지된 위협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된 종족적 배제주의 차원 중 이주로 인한 위협의 집합적 인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을 바탕으로 ‘이주자 송환정책의 선호’와 관련된 문항들을 추가로 재구성하였다(황정미 외, 2007: 145).

11) 다문화 수용은 인종,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다문화 공존에 대한 태도 및 이주자가 미치는 국가경쟁력과 문화적인 기여 등을 측정한다. 반면 다문화 위협은 권력과 자원, 이익과 보상을 위한 집단 간 경쟁과 갈등,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위협 등을 측정한다(EUMC, 2005; 황정미 외, 2007; 윤인진·송영호, 2011).

집단의 사회적 거리감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되며, 소수집단은 자신들이 인지하는 차별이나 편견에 따라 주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달라진다(원숙연·정하나, 2014:310).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국민정체성은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황정미 외, 2007; 박진경, 2010)으로 정의하고 국제 기준 ISSP 척도를 활용하여 이를 한국인에 맞춰 수정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척도를 사용하였다(정기선, 2004; 황정미 외, 2007; 박진경, 2010).

사회적 거리감은 주거 위치, 사회적 위치 등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 거리감으로 정의하고, Borgudus에 의해 구성된 11개 항목을 바탕으로 이웃으로 사는 것, 직장의 동료나 상사로 있는 것, 친척이나 자신, 자녀 등이 결혼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차별인지는 개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고,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측정한 사회불평등 관련 척도인 교육기회, 법, 지역, 소득 등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측정하였다.

집단편견은 자신과 다른 집단에 가지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보통 인종적 편견을 측정한다. 그러나 이주의 역사가 짧고 인종적 편견이라는 잣대가 아직 유효하지 않은 한국사회의 여건 상, 편견을 측정하는 다른 방식인 Adorno의 권위주의 성격 이론을 발전시킨 ‘사회지배적 성격(Social Dominance Orientation)척도’를 활용하였다. SDO 척도는 개인이 가지는 사회집단간 우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편견 측정의 다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경환, 1989; 원숙연, 2011; 정하나, 2015).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과 측정문항은 [표 2]와 같다. 그 외 성별, 나이, 학력 및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2] 측정문항

구분	변수명	측정문항
종속 변인	다문화 위협인지	1. 한국에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3.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4.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5.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6.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7.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인종차별 및 부적응으로 인해 사회적 위협으로 존재할 것이다.
독립 변인	국민정체성 (민족적)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3.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4.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구분	변수명	측정문항
	국민정체성 (시민적)	1.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2.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3.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사회적 거리감	1. 같은 동네에 사는 것 2. 직장에서 동료로 일하는 것 3. 직장의 상사로 있는 것 4. 친척이 결혼하는 것 5. 자신이나 자녀가 결혼하는 것 ¹²⁾
	차별인지	1. 한국사회는 승진이나 승급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한국 사회에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4. 한국사회에서 지역, 출신 등의 차별은 없다고 생각한다.
	집단편견	1. 특별히 우수하거나 혹은 열등한 집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집단에 대해 권력을 쓸 필요가 있다. 3. 집단에 따라 기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4. 성공을 위해서는 남을 누르고 올라서야 할 필요가 있다. 5. 집단간에 상하우열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으로 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낮게 느끼는 것을 1점으로 하여 거리감이 높아질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게 하였다.

본 연구문항을 바탕으로 문항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특정하고자 하는 변수별로 묶였다([표 3] 참고).

[표 3] 문항별 요인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다문화위협6	.804	-	-	-	-	-
다문화위협3	.725	-	-	-	-	-
다문화위협4	.713	-	-	-	-	-
다문화위협1	.700	-	-	-	-	-
다문화위협7	.679	-	-	-	-	-
다문화위협5	.642	-	-	-	-	-
다문화위협2	.553	-	-	-	-	-
집단편견5	-	.820	-	-	-	-
집단편견3	-	.784	-	-	-	-

12) 한국인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집단편견2	-	.734	-	-	-	-
집단편견1	-	.661	-	-	-	-
집단편견4	-	.654	-	-	-	-
사회적거리감2	-	-	.807	-	-	-
사회적거리감3	-	-	.741	-	-	-
사회적거리감1	-	-	.737	-	-	-
사회적거리감4	-	-	.710	-	-	-
사회적거리감5	-	-	.707	-	-	-
(민족)국민정체성3	-	-	-	.866	-	-
국민정체성2	-	-	-	.835	-	-
국민정체성4	-	-	-	.645	-	-
국민정체성1	-	-	-	.289	-	-
차별인지2	-	-	-	-	.813	-
차별인지1	-	-	-	-	.757	-
차별인지4	-	-	-	-	.714	-
차별인지3	-	-	-	-	.571	-
(시민)국민정체성2	-	-	-	-	-	.758
국민정체성3	-	-	-	-	-	.746
국민정체성1	-	-	-	-	-	.649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사용된 측정도구가 구성개념을 일관성있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mbach'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인인 다문화 위협은 .830으로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독립변인의 경우, 국민정체성의 민족적 요인은 .554 시민적 요인은 .755, 사회적 거리감은 .792로 나타나 일정 수준의 내적일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인지는 .709, 집단편견은 .793으로 측정항목 모두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다문화 위협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인지 이들의 인식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4. 실증결과의 분석 및 논의

1) 전반적인 인식의 차이

먼저 한국인과 외국인은 다문화 위협에 대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다([표 4]).

[표 4] 다문화 위협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다문화 위협		
	평균	표준편차	t값
한국인	3.00	.645	8.979
외국인	2.91	.817	

*p<.05, **p<.01, ***p<.001

다문화에 대한 위협은 두 집단사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외국인의 이주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의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주나 이주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6, 2003). 이는 외국인 증가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한국인의 다문화 위협의 인지정도가 ‘보통이다’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주민 집단에서 보이는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거주 외국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에 따라 다문화 위협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5] 거주목적에 따른 위협에 대한 인식차이

거주목적	다문화 위협		
	평균	표준편차	F-value
학업	2.85 b)	.648	4.378**
취업	2.46 a)	.848	
결혼	3.01 b)	.874	
기타	3.15 b)	.848	

*p<.05, **p<.01, ***p<.001 사후분석(Scheffe):a<b

[표 5]를 통해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학업이나 결혼을 통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다문화 위협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대상에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인식이 한국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하였다. 결혼 이주 여성에게 혼인이란 한국에서의 정주와 함께, 자신의 아이가 한국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결과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이중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원숙연·정하나, 2014).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다문화 수용성은 한국인과 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표 6] 문항별 평균에서도 알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과 유사한 의견을 보여 이들이 한국인의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6]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한국인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에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금보다 늘어났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3.37	.879	3.17	1.201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3.34	.928	3.36	1.166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2.90	.895	3.01	1.164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2.62	.931	2.49	1.056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2.74	.927	2.66	1.082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3.15	.939	2.64	1.121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인종차별 및 부적응으로 인해 사회적 위협으로 존재할 것이다.	2.91	1.028	3.02	1.139

다문화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한국인과 외국인 집단 사이의 인식의 차이는 존재할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다.

[표 7] 영향요인별 집단 차이분석

구분	한국인		외국인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민정체성 (민족적)	3.68	.711	3.11	1.125	-.6672***
국민정체성 (시민적)	3.87	.681	3.80	.780	-1.061
사회적 거리감	2.61	.649	2.59	.648	-.328
차별인지	3.43	.640	2.87	.645	-9.834***
집단편견	3.10	.743	3.12	.776	.325

*p<.05,**p<.01,***p<.001(T-test)

먼저 국민정체성의 민족적 요인에 대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은 국민정체성의 민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모두 중요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송영호, 2011). 두 가지 요인으로만 비교한다면 시민적 요인을 보다 중요시 한다. 이는 동일한 모듈을 사용하여 조사한 KGSS 2003년, 2010년 조사, 동아시아 연구원의 2005년 조사, 여성정책연구원의 2007년 조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시민적 요인의 증시는 귀화나 국제결혼 등 다양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자녀, 탈북자, 외국 국적 동포 등이 한국국민으로 포함됨에 따라 민족과 국적의 불일치를 가져오면서 국민됨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윤인진·송영호, 2011:166).

그러나 이를 외국인과 비교해 보면, 외국인이 시민적 요인을 중요시 하는 반면 한국인은 시민적 요인과 민족적 요인 모두를 중요한 국민됨의 요소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들에게 없는 민족적 요인을 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차별인지의 경우,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비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의 문제는 성, 학력,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주류 세력으로부터 사회적, 정치적으로 과소평가된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의 문제를 이주민의 탓으로 돌리고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 된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있기 때문에(Lee & Ottati, 200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나타난 차별인지의 결과가 다문화 위협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방식의 해석 역시 가능하게 한다. 소수 집단의 경우 매우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차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차별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됨으로서 받게 되는 자아존중의 저하나 사회적 소외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Major & Crocker, 1993; Rpggiero & Taylor, 1995). 그렇기에 거주 외국인들은 본인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집단편견은 예측한 것과 달리 한국인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인종적 편견이 아니라 권위주의 성격을 측정하는 F-scale을 사용했기 때문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하였다. 사회현상을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의 측면에서 파악한 사회지배가치는 민족주의나 우월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성향은 사회적 자원을 가질 자격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의 분리를 자연스럽게 판단하기 때문에(Esses et al., 2001, Sidanius & Pratto, 2001; 원숙연, 2011에서 재인용), 다문화에 대한 위협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개인적 인식의 차이로 보여진다. 집단편견은 다문화 위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연구 결과를 통해 재논의 하고자 한다.

2) 다문화 위협의 영향요인

한국인과 외국인 집단의 다문화 위협에 대한 집단간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집단 간의 위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은 다문화 위협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¹³⁾.

[표 8] 다문화 위협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한국인			외국인		
		B	표준화계수 (β)	t	B	표준화계수 (β)	t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047	.036	.612	-.138	-.053	-.844
	나이	-.003	-.004	-.065	-.040	-.040	-.646
	학력	-.089	-.155	-2.350**	-.034	-.049	-.049
	소득	.009	.016	.249	-.105	-.092	-.092
국민정체성(민족적)		.135	.147	2.105*	.021	.030	.463
국민정체성(시민적)		-.005	-.005	-.070	.196	.187	2.987**

13) 외국인의 경우 거주목적, 국적취득 여부 등도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인식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측정된 인구통계학적 변인만을 사용하였다.

변인	한국인			외국인		
	B	표준화계수 (β)	t	B	표준화계수 (β)	t
사회적 거리감	.278	.285	4.810***	.004	.003	.049
차별인지	-.024	-.024	-.401	-.185	-.150	-2.395*
집단편견	.097	.113	1.910 †	.370	.358	5.644***
R ²	.168			.245		
Adjusted R ²	.138			.212		
F값	5.546***			7.411***		

† p<.01 *p<.05, p<.01, ***p<.001

한국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감, 학력, 국민정체성의 민족적 요인, 집단편견이 다문화 위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은 집단편견, 국민정체성의 시민적 요인, 차별인지가 다문화 위협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밝혀졌다.

한국인들 사이의 다문화 수용성에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 거리감은 한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척도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일반적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김상학, 2004). 이러한 척도가 다문화의 위협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실제 외국인을 접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외국인과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잠재된 위협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을 때 접촉경험의 부족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 역시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 강화는 정책의 시점과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류 집단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커진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황정미 외, 2007; 임동진·박진경, 2012). 그러나 이것이 저임금, 저학력 노동자들이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의 경쟁 위협 때문이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고숙련 노동자가 반이주민 정서를 덜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O'rouke et al, 2006), 오히려 국내의 경우 시장경쟁 모델보다 사회정체성이 한국인들의 배제적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위협요인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황정미 외, 2007, 장승진, 2010, 조정인, 2011:289에서 재인용). 다만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다양성이나 소수

자 수용에 적극적이라는 것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어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교육 수준이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정체성을 시민적 요인과 민족적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고(황정미, 2010), 강한 단일민족의 전통을 유지해 온 한국에서 ‘국민됨’을 정의하는데 있어 시민적 요인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지만(KGGS, 2003; 동아시아연구소, 2005; 황정미 외, 2007), 시민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경우 이민자 집단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포용적 태도를 보이고 민족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외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Brubaker, 1992; Shulman, 2002). 본 연구에서도 민족적 요인을 중요시할 수록 다문화의 위협인지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거주 외국인 집단과의 차별성을 설명해 주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인과 달리 국민정체성의 시민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우 다문화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인과 인식지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집단편견의 측정도구는 F-scale을 활용한 사회지배가치 측정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사회지배가치는 민족주의나 우월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Esses et al., 2001; Sidanius & Pratto, 2001). 사회적 자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분리를 당연시 하는 인식은 외국인 등 한 사회내의 소수집단을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원숙연, 2011). 조사결과 한국인과 외국인 집단 모두에서 집단편견은 다문화 위협에 정(+)의 영향을 주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집단편견이 외국인 집단의 다문화 위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 개인은 사회적인 자신의 모습에 자긍심을 얻고 싶어하는데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여길 때 성취되게 된다. 하지만 소속집단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존심을 제공해주지 못해 부정적인 사회 정체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되는 대안 중 보편적인 선택이 해당 집단에서의 일탈이다(Taifel & Turner, 1979).

조사 대상 외국인들 중 한국에서의 정주를 원하는 여성이 많아 자신들을 소수 집단화하지 않고, 자신들의 민족 집단에서 일탈해 주류 집단화 하는 심리를 반영한 결과라 연구자는 해석하였다. 실증 연구결과, 거주 외국인은 집단편견과 차별인지가 모두 다문화 위협에 영향을 주어 연구자의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해 주었다. 즉, 자신들이 차별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류 집단화 하여 자신이 아닌 이주민 집단을 외집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들의 차별감을 실태조사한 몇몇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2008년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이주민이나 그의 가족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한 응답자가 53.4%에 달했다. 2006년, 2009년, 2012년에 실시한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2%, 34.8%, 41.1%로 나타나 차별에 대한 경험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는 ‘실제 차별에 대한 경험은 높아지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주류 집단화하여 생각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느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적 요인을 강조할수록 다문화를 위협에 정(+)이 영향을 주는 것과는 일맥 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시민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한국인이라 생각하는 이주자일수록 다문화 사회로의 확산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한국인이 민족적 요인을 강조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1) 연구의 함의

한국사회는 이주노동과 국제 결혼 등으로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고 있으나 인구학적 다양성이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윤인진·송영호, 2011:180).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용의 문제보다 위협의 문제에 주목하고(양계민, 2010; 조정인, 2011; 김정규, 2013), 이주자들의 다양성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인태정, 2009; 김보라, 2012; 원숙연·정하나, 2015) 한국사회에서 이주가 일상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인식지형의 차이는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범주화하여 다문화 위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집단 별로 유의미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수용은 당위적인 현실이 되고 있고 오히려 위협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협인지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종족적 배제주의를 낳게 되고, 이는 한국인들이 이주자에 갖는 차별과 편견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이주자의 경우에도 이주의 목적,

정주 여부 등에 따라 집단 내에서의 내집단과 외집단의 분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증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미있는 논제를 발견하였다.

첫째, 한국인들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 경험이라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사회적 거리감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감이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국민들은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인들은 실제 외국인을 접하고 인식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체감이 될 때 가중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접촉을 늘릴 경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둘째,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중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자신들을 한국인이라 느낄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을 ‘준 한국인’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자신들과 다른 이주자를 외집단화 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차별의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주관적 기대감에 의존하고 있는 가변적인 요소라 보여진다(원숙연·정하나, 2014). 이들의 이중정체성은 집단끼리의 경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집단 사이에서도 인종, 민족, 거주유형 등에 따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집단편견은 다문화 수용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사회집단 간 우열을 강조하고,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수록 다문화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이(원숙연, 2012) 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편견의 근원이 되는 감정적 측면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적대적 감정을 지칭하며(김혜숙, 1999:1),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반목과 편견적 태도는 비친숙성과 긍정적 상호 접촉 경험의 부족에 기인될 수 있다(김혜숙 외, 2011:56). 한국인의 경우 집단편견이 다문화 위협에 정(+)으로 작용한 것은 사회적 거리감의 영향력과 유사한 의미라 보여진다. 그러나 거주 외국인의 집단편견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거주 외국인들은 자신들을 ‘한국사람’으로 범주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따른 자기범주화는 사회정체에 의해 부각되고 자신을 내집단에 더욱 동일시하고 외집단과 구분하는 경향을 보인다(김혜숙, 1999). 거주 외국인 집단에서 나타난 집단편견의 다문화 위협에 주는 정(+)의 영향력은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해 보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의 인종적 다양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집단에 대한 다른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책입안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관련 정책입안 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수 집단인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정책방향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가 다수 집단인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인식차이에 주목한 것은 소위 다문화 정책이라 통칭되는 외국인 정책이 정책 대상집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정책은 규범적인 지향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와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원숙연, 2012). 따라서 정책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책,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 위협인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배제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황정미 외, 2007; 박진경, 2010; 장임숙,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조정인, 2011). 그렇기에 위협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위협인지에 대한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인식차이가 무엇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 대상자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다수 집단인 한국인이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촉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당위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위성과 별개로, 일반 국민들이 외국인을 생활 속에서 접하는 기회는 매우 부족하다. 접촉 경험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위협인지에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접촉 경험을 긍정적으로 하게 될 경우, 위협인지가 적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의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그동안 정부의 각계부처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진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한국 대중들을 향한 체계적인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은 요원한 실정이다(조정인, 2011). 거주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기 보다는, 외국인들의 불법거주나 범죄 등의 보도를 통해 다수의 한국인들이 이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미디어의 적극적인 캠페인, 중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 대한 직·간접 접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주로 시행하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정책대상자인 외국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한국 사회의 거주 외국인들은 본연의 민족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한국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수집단은 다문화 주위에 동의할수록 자신의 집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하나, 동화주의에 동의할수록 자신의 집단과 동일시하는 것이 적어진다(Verkuyten,

2005). 현재 동화주의에 치중된 한국의 정책 방향이 이들을 자신의 집단에서 일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인종적 다양성을 경험한 서구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주 집단의 요구는 점차 다문화 모형으로 변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주 초기에는 이주 집단의 요구는 동화모형의 정책에 부합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문화 모형의 정책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Breugelmans & Vijver, 2004; Massey, 2004; Dunn & Nelson, 2011). 따라서 이주집단이 가진 정체성, 즉 민족정체성을 지켜주는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 인종들이 민족 정체성을 잘 형성해 나갈 경우 자아 존중감, 주류 문화에 대한 건전한 수용 등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인종, 민족 집단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듯이(Phinney, 2007), 바람직한 민족 정체성의 형성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화주의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소수 인종의 민족 정체성의 강화를 위한 다문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¹⁴⁾

본 연구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 지형을 파악하여 다문화를 위협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집단 간 인식지형의 실증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표본에의 낮은 접근성과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은 그 자체가 한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을 실증 연구 대상으로 함에 있어 접근성이 높은 다문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표집하다 보니 성별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결혼 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실제 한국에서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거주 외국인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성별, 입국 목적별 대상자 등에 대한 고른 분포가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를 연구 대상지로 결정하였으나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화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학력이나 소득이 높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광범위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향후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실증 연구 및 결과의 해석을 풍부하게 할 질적 연구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14) 연구의 한계는 본 연구의 심사위원들의 조언에 상당부분 기반하고 있다. 고민해주시고 고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 김금미(2010).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5(2), 259-283.
- 김도경, 정명주, 차창훈, 지종화(2009). 다문화주의와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9(1), 183-214.
- 김보라(2012). 다문화 정책 인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수도권거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 169-206.
- 김정규(2013). 경쟁과 위협: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수용도. 사회이론, 43, 199-237.
- 김혜숙(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13(1), 1-33.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희자(2008).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 9(1), 255-273.
- 민경환(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8, 146-168.
- 박수미(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박정서(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적태도 분석연구. 열린교육연구, 20(4), 89-113.
- 박진경(2010). 한국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 정책 정향성 영향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진경·원숙연(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 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191-217.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1996). 전환기한국 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_____(2003).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 성균관대학교(2004). 한국종합사회 KGSS 조사 2003. 서울: 한국종합사회조사통계자료집. _____(2011). 한국종합사회 KGSS 조사 2010. 서울: 한국종합사회조사통계자료집.
- 송미영(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한국민족연구논집, 47, 74-98.
- 양계민(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원숙연(2011).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4), 561-589.
- _____ (2012). 수렴 또는 발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시민·외국인이주자 간 인식의 지형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2), 245-274.
- _____ (2013). 외국인 정책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역학: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7(2), 85-112.

- 원숙연, 정하나(2014). 새로운정책대상자로서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 지형: 한국사회, 한국인,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2(1), 303-334.
- 이종범(2008). 다문화 시대의 소수자 행정과 정책. *한국행정학보*, 42(3), 1-7.
- 유명기(2006). 소수자, 그 무적(無籍)의 논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9-20. 과주: 한올아카데미.
- 윤상우, 김상돈(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윤인진, 송영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인태정(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2), 339-369.
- 임도경, 김창숙(2013).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동향. *다문화와 평화*, 7(2), 173-204.
- 임동진, 박진경(2012).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2), 123-151.
- 장승진(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4(3), 97-119.
- 장임숙(2010). 다문화적 인식이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1), 247-270.
- 전영자, 전예화(201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13.
- 전영평(2007).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관점. *정부학연구*, 13(2), 107-131.
- 정기선(2004).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불평등 지각, 노동지향, 가족가치: 국제사회조사(ISSP)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연구재단.
- 정기선, 이선미(201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1), 45-72
- 정하나(2015). 외국인 정책수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순경(2003). 차별의 이해.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 서울: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인(2011). 누가 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생산가능직 근로자들의 유입 증가를 반대하는가: 문화적 위협변인과 경제적 위협변인의 영향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281-305.
- 최무현(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51-78.
- 최현(2007). 한·일 시티즌십(citizenship) 비교. *경제와사회*, 73, 163-202.
- 한국관광문화연구원(2008).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서울: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여성가족부.
- 황정미, 김이선, 이진영(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 Banting, K. & Kymlicka, W.(eds).(2006).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Oxford Press.
- Breunig C. & Luedtke. A. (2008). What motivates the gatekeeper? Explaining party preference on immigration.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 21(1), 123-146.
- Brubaker, R.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oenders, M., Lubbers, M. & Scheepers, P. (2003), Majoritie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 Overview of theories. Hypotheses and results of majorities towards minorities. EUMC. (Report for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Ref. N. 2003/04/01)
- Choe, H. (2003). *Nation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China and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Duckitt, J. (2006). Differential effects of right 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n outgroup attitudes and their mediation by threats from and competitiveness to out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684-696.
- Espenshade, T. & Hempstead, K(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2(3), 189-224.
- Esses, M., Jackson, M. & Armstrong, L.(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724.
- EUMC(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2005).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MC.
- Gallya L. (2004).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Does It Matte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1), 1151-1183.
- Jackson, J., Brown, K., Brown, T. & Marks, B.(2001). Contemporary immigration policy orientations among dominant-group members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31-456.
- Jacobson, K.(1985). Resistance to affirmative action: Self-interest or racis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9(2), 306-29.

- Jones, L. & Philip, S. (2001).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2), 103-118.
- Lee, Y. & Ottati, V. (2002).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licy: The role of in-group-out-group bias, economic concern, and obedience to law.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5), 617-634.
- Phinney, S., Brian, J. & Charissa, S. (2007). Positive intergroup attitude: The role of ethnic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5), 478-490.
-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Taylor, C.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ggiero, M. & Taylor, M. (1995). Coping with discrimination: How disadvantaged group members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on front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26-838.
- Sulman, R. & Beit-hallahmi, B. (1997). National and civic identities of palestinians in Israe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2), 219-228.
- Verkuyten, M. (2005). Immigration discourses and their impact on multiculturalism: A discursive and experimental stud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2), 223-240.

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Threat Awareness of Multiculture Societ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Koreans and Resident Foreigners in Korea

Jeong, Hana*

Increase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means that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witnessed in Western immigration countries is also appearing in overall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which fit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A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re is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for which different policy directions are required. First, it was contact experience that decided Koreans' multicultural attitudes. High level of influence of contact experience means that although Koreans take multicultural society as granted, they actually have low level of contact experience with immigrants, which requires policy tools to convert actual strengthened contact experience into positive directions. Second, in the case of immigrants, the less they recognize discrimination and the more bias is fortified, the more they accept multiculturalism as a threat. This exhibits their dual sense of identity in which they recognize themselves as foreigners toward Koreans but they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 foreigners. Thus, assimilation to Korean society is not deemed to be the only alternative and Korean society needs to practice genuine multiculturalism to strengthen immigrants' ethnic identity. Study also conducted in-depth discussions on the implications of above results.

Key Words: immigrants, multicultural threat, ethnic identity, social sense of distance, recognition of discrimination, multicultural policy

◆ 2016.04.28. 접수 / 2016.05.27. 1차수정 / 2016.06.08. 게재확정

* Researcher of Research Institute for Ewha Social Science(hana5409@naver.com)